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 오늘의 전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 5,13-16 참조)

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다만 쓸데가 없을 뿐 아니
라 우스꽝스럽고 기괴한
것입니다. 함지박 안에 숨
어 있는 등불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금을 간절히 필요로 하
는 세상이 그것을 찾다가
짜지 않은 소금을 발견하
면 “아니, 이게 무슨 소금
이야?”하고 욕을 합니다.
욕을 먹어 마땅합니다. 자
기 본래 모습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계산성당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제1독서 이사 58,7-10

제2독서 1코린 2,1-5

복 음 마태 5,13-16

입 당 송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화 답 송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빛과 소금

조성택 사도요한 신부 | 월성본당 주임

신앙의 본질은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복음화되어 가는 과정 안에서 생생하고 살아있는 그 체험을 세상에 드러낼 때 비로소 살아있는 복음이요 움직이는 복음입니다. 이론이나 지식이나 자신의 재능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힘이 없고 생명력을 잃은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언급하기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혜나 유창한 말재주에 의존하지 않고 하느님의 능력을 항구하게 요청하며, 그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말솜씨가 없고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표현도 그 생명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양념입니다. 또한 매일 우리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밝은 빛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 흔하니까 소중한 줄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흔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신앙의 가치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성사로서 축성되고 성체성사로서 성화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의 처지는 실로 얼마나 복된 신분이며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빛과 소금과 같이 교회 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하느님과의 밀착된 관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의 원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봉헌하고 생활을 봉헌하며 인내심과 참을성과 성실함을 봉헌합시다. 바로 사도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훌륭한 교과서요 내가 복음화되어가는 가장 소중한 생활지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임을 확신시켜줍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작업부터 시도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오신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핵심이며,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의 제22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문(요약)

믿음과 사랑 :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1요한 3,16)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22차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 저는 특별히 병자들과 그들을 돕고 보살피는 모든 이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올해 세계 병자의 날의 주제는 “믿음과 사랑 :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1요한 3,16)”입니다. 우리의 고통 곁에, 그리고 좀 더 정확히는 우리의 고통 안에 그리스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 의미를 밝혀 주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그분께서는 고통의 외로움을 물리치시고 그 어둠을 밝혀 주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질병과 고통을 몸소 짊어지심으로써 질병과 고통이 더 이상 최종 선고가 아니기에 풍요로운 새 삶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고통은 변화되어 더 이상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힘입어, 우리는 고통 받는 모든 이를 위한 착한 사마리아인이신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1요한 3,16)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들에게 하느님의 미소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헌신이 우리 행동 양식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고 그 온기를 누리며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다른 이를 존중하는 자상한 사랑과 자애를 키우기 위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의 어머니이시고 우리 어머니이신 마리아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당신 자녀들의 필요와 어려움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태중에 아기를 잉태하신 마리아께서는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고 서둘러 갈릴래아를 떠나 유다에 있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 도우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는 당신 아드님에게 간청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순례의 여정인 당신 생애 내내,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라고 예언한 노인 시메온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셨습니다. 또한 불굴의 인내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와 고통 받는 이들의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아래에 성모님과 함께 서 있던 제자, 요한 성인은 우리를 “사랑이신”(1요한 4,8.16) 하느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끅니다. 성인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 제22차 세계 병자의 날, 병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이들을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모든 병자 여러분과 그들을 돌보는 보진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교황 강복을 보내 드립니다.

바티칸에서 2013년 12월 6일
프란치스코



재미있는 것과 의미 있는 것

황은모 요한 신부 | 이태리 유학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가요, K팝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한국의 가수들이 매우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신나고 즐거운 리듬, 완벽하게 준비된 댄스, 그리고 멋지게 차려 입은 스타일 등으로 매우 주목을 받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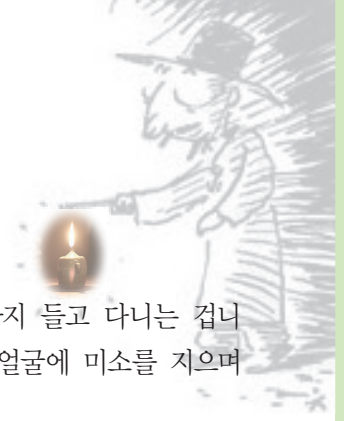
작년 여름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노래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우 신나는 리듬에 따라서 부르기 쉬운 가사의 노래였지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특이한 의상을 입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듯한 안무를 선보였는데 그것 역시 매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길을 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쉽게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저 역시 그렇게 듣다가 보니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될 만큼 참 신나고 재미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그 노래의 가사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에는 아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겁니다. 리듬은 정말 신나고 재미있었지만 정작 노래의 가사에는 아무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 노래와 가수를 비난하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래의 가사에는 아무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지만 단순히 신나고 재미있는 리듬과 안무만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코드와 우리들의 성향

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흔히 불후의 명곡이라고 말하는 노래들은 좀 다릅니다. 잠깐 동안 인기를 끌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노래들을 보면 그 가사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잠깐 주목을 받기보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의미 있는 것을 찾기 보다는 신나고 재미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이런 대답을 자주 듣습니다. “에이, 그건 재미없어요. 하기 싫어요.” 재미없으니까 하지 않겠다?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수많은 다양한 문화 매체들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그 중에서 그저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만 찾아 다녀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나고 재미있는 일인가?’ 하고 생각하기 전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재미있는 인생만을 만들려 하기보다 참으로 의미 있는, 그래서 오랫동안 깊이 기억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필문**

지혜의 등불



어느 마을에 밤마다 물을 길어 나르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낮에도 볼 수 없으니 인적이 드문 밤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늘 한 손에 등불을 높이 쳐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동이의 물이 쏟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병신, 꼴값하네. 저런다고 앞이 보이냐...”

하지만 맹인은 늘 그렇게 등불을 들고 물동이를 날랐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나그네가 그 광경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앞도 못 보는 당신이 왜 무거운 물동이를 나

르면서 불필요한 등불까지 들고 다니는 겁니까?” 그러자 그 맹인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밤에 혹시라도 저를 보지 못하고 부딪혀서 다치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힘들게 나르는 저의 물동이라도 옆질러지는 일은 없겠죠.”

맹인을 비웃는 그들처럼 한치 앞도 못 보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선인장처럼 자기 보호만을 위한 가시를 곤두세우고 타인의 삶을 관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타인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지혜의 등불을 마음에 되새겨 봅시다. **필독**

금주의 성인

2월 9일	성 니체포로(순교자, 안티오키아, 260년경), 성녀 아폴로니아(동정 순교자, 알렉산드리아, 249년) 성 안스베르토(주교, 루앙, 695년경), 성 테일로(수도승, 주교, 란다프, 6세기경)
2월 10일	성 궤리엘모(은수자, 말레발, 1157년), 성녀 소테리스(동정 순교자, 로마, 304년) 성녀 스콜라스티카(수녀원장, 480~555년), 성 아포니오(순교자, 1세기경)
2월 11일	성녀 곱나타(동정녀, 수녀원장, 벨리부니, 6세기경), 성 그레고리오 2세(교황, 731년) 성 루치오(주교, 순교자, 아드리아노플, 350년), 성 아돌포(주교, 오스나브뤼크, 1185~1224년) 성 파스칼 1세(교황, 824년)
2월 12일	성 가우덴시오(주교, 베로나, 465년), 성 멜레시오(주교, 증거자, 안티오키아, 381년) 성 에울랄리아(동정 순교자, 바르셀로나, 290~303년), 성 에텔발도(주교, 린디스파른, 740년경)
2월 13일	성녀 가타리나(수녀, 리치, 1522~1590년), 성 고스베르토(주교, 오스나브뤼크, 859년) 성녀 베아트릭체(동정녀, 오르나시외, 1309년), 성녀 마우라(유모, 순교자, 250년) 성 아가보(예언자, 순교자, 안티오키아, 1세기), 성녀 푸스카(동정 순교자, 250년) 성 후노(신부, 수도승, 엘리, 690년)
2월 14일	성 발렌티노(신부, 의사, 순교자, 로마, 269년), 성 에페보(순교자, 273년) 성 아욱센시오(은수자, 수도원장, 비티니아, 473년)
2월 15일	성 지그프리트(주교, 스웨덴, 1045년), 성녀 아가페(동정 순교자, 테르니, 273년) 성녀 요비타(순교자, 브레시아, 121년), 성녀 제오르지아(동정, 은수자, 클레르몽, 500년) 성 파우스티노(순교자, 브레시아, 121년)



김영환(베네딕도) 몬시뇰 선종

대구대교구 소속 김영환(베네딕도, 향년 83세) 신부님께서 지난 2월 1일(토)에 선종하셨습니다. 2월 3일(월)에 장례미사를 거행하고 남산동 성직자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신임 잘츠부르크대교구장 착좌



대구대교구와 자매교구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대교구의 프란츠 라크너 대주교가 신임 잘츠부르크대교구장에 임명되어 2014년 1월 12일(일) 착좌식을 가졌다.

■ 볼리비아 선교 사제 파견미사



김동진(제멜로) 신부님과 고태권(그레고리오) 신부님의 볼리비아 선교 사제 파견미사가 2월 3일(월) 오전 11시 성모당에서 교구 총대리 이용길(요한) 신부님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대구대교구 공식 스마트폰 앱 출시!

교구 문화홍보실에서는 다양한 가톨릭 정보를 제공하는 교구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배포합니다.

설치방법

1.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 1) Play 스토어 실행
- 2) 검색란에 '대구대교구'를 입력하여 검색, 설치

2. 아이폰 사용자

- 1) App Store 실행
- 2) 검색란에 '대구대교구'를 입력하여 검색, 설치



빛만 되래요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10일(월) 11:00 계산성당	성요셉아버지학교 월례미사	2월 10일(월) 20:00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2월 10일(월) 11:00 성건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2월 15일(토) 10: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10일(월) 11:00 신평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2월 15일(토) 11:00 성모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2월 10일(월) 11:00 죽도성당	평화미사	2월 15일(토) 15:00 프란치스코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10일(월) 11:30 범어성당		

교육 | 모집

쉬운방법으로 읽는 거룩한독서 성경모임

기간: 1.6(월)~2.27(목), 선착순
낮반: 월~목, 저녁반: 월~화
장소: 아버지 성경학교, 대상: 전신자
내용: 요한복음, 주최: 포교베네딕도수녀회
문의: 815-1114 / (010)4910-4627

Show Bible : 아브라함

성경 속 인물을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

기간: 2.12~3.12(매주 수) 19:00~21:00
장소: 바오로딸서원 / 청년: 2만 원
문의: 양채사리아수녀, (010)2503-5185

에니어그램 교육

일시: 2.25(화) 19:00(저녁반)
2.28(금) 10:00(오전반)
장소: spc상담심리센터-에니어그램연구소
내용: 에니어그램 1단계 교육(8회기 16시간)
문의: 659-3456 / 254-2664

마음으로 책임기(독서 치료)

일자: 2014년 3월 매주 화요일
시간: 18:00~20:00 (2시간 10주간)
장소: 남산동 성바오로 서원 / 12만 원
대상: 남·녀(30대~5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256-4592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일시: 3.5(수)
오전반 10:00 / 저녁반 19:00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문의: 253-1313

가톨릭신문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3.12(수)~27(목), 15박 16일
장소: 이탈리아·그리스·이스라엘
가격: 내측 498만원, 발코니 558만원
이용: 대한항공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2014년 본당사회복지학교(기본과정) 모집

토요반: 2.15~3.15 14:00~17:00(4회)
월요반: 2.17~3.10 14:00~17:00(4회)
대상: 전신자
참가비: 1만 원(교재비 포함)
문의: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255-7222

새빛학교 국어반 신입생 모집

접수: 2.11(화)까지
대상: 한글에 자신없는 성인
문의: 교무실, 476-3100

경산아버지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구약 2년, 신약 2년의 총 4년
낮반: 금요일, 밤반: 수요일

심화반: 4년 수료자를 위한 2년 과정
내용: 교훈서, 시편 (월요일)
문의: 황마리스텔라 수녀, (010)6776-2376

성요셉요양병원

(구, 논공가톨릭병원) 환우 모집

노인성질환(치매·중풍 등), 말기암
환우 영성치유 돌봄, 봉성제
장효원(요셉) 신부님 매일미사 봉헌
입원상담: 615-4871

2014년도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보육교사양성과정 신입생 모집(1년 과정)

특별과정(소양) 자격취득가능
문의: 대구가톨릭대 보육교사교육원
850-3055 / 3366

행복한재활요양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노인성질환 입원환우를 돌봐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소: 행복한재활요양병원
문의: 김요세피나, (010)3503-8427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주관: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큰 사랑, 큰 믿음!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이전 확장**
백내장, 노안, 근시교정 수술
원장 이호성(아오싱), 조영수(다미아노)
대구시 남구 월배로 468(대명동)
(구)달성구청자리
☎(053)651-2233

국내 최초 「아픈증세 상담하고 좋은의사 소개하는」
LDK의원
원장·병리전문의 이종구(마티아)
진 대구의료원 원장 범어네거리 4번 출구
Tel. (053)755-7775
www.ldkclinic.com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1-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준문(파비올라)

해아림한의원
소아클리닉 - 틱, ADHD, 아노
마음클리닉 - 공황, 불안, 불면
원장 김 대 역(안드레아)
예약 :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승원학원옆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대표전화 1577-2400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사랑의 청정지역 명품 김——
광천 이조맛김
김·건어물·젓갈류 판매
성전인원기근 마면 및 바지회, 성모회·자모회 등 각종 단체 기증모음
전 영 진(바오로) 010-4192-5655
이 경 숙(모니카) 010-4123-5353
농협 351-0054-3404-83 예금주 이경숙
한개라도 배송해드립니다.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대구갤러리
예율,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대표 임 미 순(마리아)
동아백화점 본점에서 시청방향 사이
(맞은편 통일주차장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구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박의현 구심내과 의원
서정희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2014년도 예비신학생 등록 안내

기간: 2.9(일)~23(일)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1~고3, 대학, 일반

등록비: 2만 원(1년) / 문의: 본당사무실
매년 새로 등록해야 하며 입시반
(고3·대학·일반)은 1년간 결석없이
출석해야 2015학년도 대신학교
지원 가능합니다.

등록한 예비신학생은 입학미사에 참석

입학미사: 3.16(일)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성당

행사 | 모임

김옥수 신부 성화타일조각전

기간: 2.11(화)~23(일)

장소: 대백프라자 갤러리

2월 가나강좌

일시: 2.16(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가나 파정

기간: 3.1(토) 14:00~2(일) 16:00

장소: 연화리 피정의 집
참가비: 1인 5만 원(선착순 30쌍)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운전기사 사도회 월례회

일시: 2.12(수) 14:00

장소: 교구청 내 사도회 사무실

문의: 강청남, (016)520-8330

교육 | 모집

가톨릭 부모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일시: 2.26(수) 14:00~16:30, 접수: 13: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 1만 원

주제: 좋은 부모 (※사전접수요망)

강사: 정재익 다니엘(가족상담사)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2대리구 '거룩한 독서' 성서모임 개강

개강: 2.17(매주 월)부터

오전반 10:30, 저녁반 19:30

강사: 2대리구 주교대리 박성대(요한) 신부

참가비: 3만원(교재비 포함)

문의: 743-7010

평신도신학교육원 신학생경강좌 수강생 모집

성사론, 축일과 신자생활, 윤리신학,
요한묵시록, 성화와 성경이야기, 동양
철학, 대구의 신앙·역사·문화, 미사전
례와 신자생활, 신·구약성경, 구약입문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

성체 신심 세미나

기간: 2.21(금)~23(일), 베네딕도수녀원

내용: 현사조배, 강의, 참회, 면담성사, 안수
강사신부: 하성호, 송재준, 현익현,
변재홍, 정기모, 강혜경 수녀

문의: 지속적인성체조배회, (010)5493-1819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신입생 모집

대상: 중학교 과정(학력인정 대안학교)

접수: 2.12(수)까지, (054)338-0530

<http://www.sanschool.org>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우쿨렐레, POP, 초코아트, 톨페인팅,
백세건강강좌(무료), 문의: 476-6211

채용 | 안내

산격성당 여자 사무원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사무실, 943-9030

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채용

원서접수: 2.11(화)~12(수)

제출: 학교법인선목학원법인사무국

참조: <http://www.dgsunmok.or.kr>

남산동 대신학원 학생주방 직원 채용

모집기간: 2.17(월)까지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방문제출)

문의: 660-5170 / (010)5771-5100

대구가톨릭대 부설 어린이집 교사 채용

대상: 2~4년 경력(몬테소리 이수자 우대)

문의: 856-3033 / (010)2801-5729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매일신문사에서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매일상조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면접 후 채용)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산(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2014. 5. 15
개교100주년
기념식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대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3대를 이어온 경옥고 명가
(주)약령시사람들
◎ 선물용 경옥고 제품
◎ 경옥고(젤류, 환, 차, 팍, 샴푸 등)
◎ 공진단 ◎ 홍삼제품
양대석(안토니오) 010-3528-8008
☎ 1644-8807, (053)428-8002
www.약령시사람들.com (약령시장 내)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행복한 재활·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영, 월례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 미 행(요세피아)
이 범 수(대견안드레아)
☎(053)426-6000 (중구 보전소 옆)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혈당계·휠체어·산소치료기
뜸·부항기·주열기·찜질기
체온계·욕창매트·환자용품·안마기
실버카·보호대·글루코사민·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2513

이시우 신경
<http://적주외과>
적주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